

# KICRA NEWS



##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 정기 투어세미나 “흘린 땀만큼 값진 화합의 장으로”

(사)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가 지난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남한강 연수원에서 '정기투어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자협회 회원은 물론, IT업계 홍보·마케팅 담당자 400여명이 모여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이번 투어세미나에서는 전문지 기자생활을 시작한 초보 기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 선배기자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위주로 구성된 주제세미나로 막을 열었다. 이어 서 체육대회로 열기를 더하고 '화합의 밤' 행사를 통해 선후배간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등 이틀 동안의 일정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주제세미나는 '전문지 기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디지털경제의 김용석 주간과 온더넷의 박재곤 편집장이 발표하고, 지난해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한 컴퓨터월드 김재철 기자가 수상대상이 된 기사의 기획배경에서부터 취재과정 및 애로점 등을 자세하게 소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28일 오후 일정으로 진행된 체육대회는 2개 팀으로 구성해 퀴즈게임과 소풍경기를 다채롭게 펼쳤으며 마지막을 장식한 집단축구에서 젊음의 열기를 맘껏 발산하는 진풍경을 보여주었다.

'화합의 밤' 행사에서는 캠프파이어로 시작해 한여름밤을 한껏 달구었다. 팀별 장기자랑을 통해 명물이 탄생하는 순간들, 이어진 선후배간의 만남의 장으로 한여름밤을 꼬박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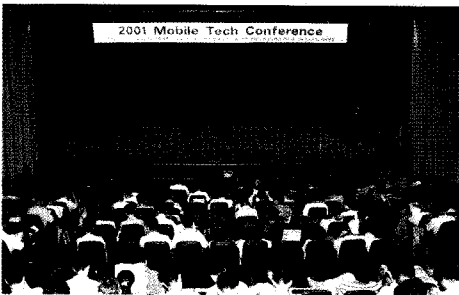
## '2000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 모토로라 후원 미국 연수 예정 이정순·김재철 기자 수혜... 취재 활동 지원·취재 의욕 고취에 기여

모토로라에서 후원하는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구 한국컴퓨터기자클럽)의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IT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예정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수혜자는 지난해 12월 거행된 정보통신기자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2000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로 발표된 바와 같이 '컴퓨터월드'의 김재철 기자와 'PC사랑'의 이정순 기자에게 그 영광이 돌아간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난 96년부터 후원한 모토로라는 이들 기자들에게 모토로라 해외 영업장에 대한 취재·여행의 편의를 제공해 왔다. 이는 정보통신 업계 전문 기자들의 활발한 취재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취재 의욕을 북돋우는 업계의 대표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프로그램세계 '2001 모바일 테크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모바일 기술 한자리에...모바일 솔루션 개발 방법론 제시



'2001 모바일 테크 컨퍼런스'는 양일에 걸쳐 1천여명이 참석해 모바일에 대한 높은 열기를 보여주었다.

'Any Time, Any Where, Any Device'로 함축되는 모바일 컴퓨팅은 21세기 기술의 핵심 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워유저와 디벨로퍼를 위한 컴퓨터 종합 전문지인 월간 프로그램세계에는 지난 7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2001 모바일 테크 컨퍼런스 Wireless Odyssey'를 개최, 모바일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 조명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무선 보안, SyncML과 메시징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사전 및 현장 등록을 통해 1,000여명 이상의 개발자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모바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각 섹션에는 해당 분야를 주도하는 기술 보유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엔테라시스네트웍스 코리아(네트워크 인프라), 한국오라클(솔루션), 허우리(무선 보안), 쓰리알소프트(메시징), 마이엔진(SyncML)이 참여해 분야별 기술 동향과 핵심 기술에 대해 강연했다.

행사를 주최한 프로그램세계의 이향선 편집주간은 "일상 생활 깊숙이 침투한 모바일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핵심 인프라 기반의 모바일 기술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4개월 동안의 시장 분석과 기획을 통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업계 및 참가자들로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메시징까지 핵심 모바일 기술을 아우르는 주제로 구성되어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핵심 모바일 기술을 총점검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 데이터월드, 모바일 전문 월간 '모바일 비즈니스' 창간 지난 5월 창간... 미국 CMP사 m-business와 기사 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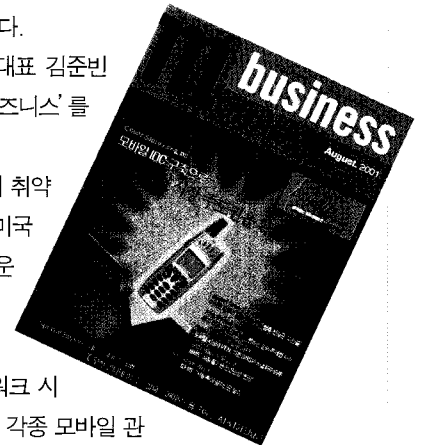
IT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모바일' 분야의 비즈니스 전문지가 창간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월간 'NETWORK TIMES'와 월간 'Web Business'를 발간하고 있는 데이터월드(대표 김준빈 [www.datanet.co.kr](http://www.datanet.co.kr))는 지난 5월 모바일 전문 비즈니스지를 표방하는 월간 '모바일 비즈니스'를 창간했다.

모바일 시장의 정확한 기술 정보와 시장동향, 비즈니스 전략 제시 등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취약한 모바일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월간 모바일 비즈니스는 미국 CMP사의 m-business와 독점 기사제휴를 맺고 국내 모바일 관련 업체들이 놓치기 쉬운 해외의 모바일 시장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월간 모바일 비즈니스는 모바일 디바이스, 데이터서비스, 솔루션, 콘텐츠, 커머스, 네트워크 시장의 동향과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시장이 요구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각종 모바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모바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 정론지로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월간 모바일 비즈니스의 기사는 데이터월드가 운영하는 IT포털 데이터넷([www.datanet.co.kr](http://www.datanet.co.kr))을 통해서도 서비스된다.



## 컴퓨터월드 '사원 지주제'로 새롭게 출발

올해로 창간한 지 16년이 된 컴퓨터월드는 지난 6월 초 대청정보시스템에서 독립해 '파워미디어(대표 김선오)'라는 새로운 법인으로 새출발을 선언했다.

특히 기자들이 주주가 되어 새롭게 출발한 컴퓨터월드는 정보통신산업 종합 전문지로서 독자들에게 정확한 시장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비판할 수 있는 건강한 매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전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3가 72-6번지 글샘빌딩 3층    전화 : 363-8200    팩스 : 363-8210